이-윤 '돈풀기 경쟁'…여 "내년 예산 반영" 야 "출범 뒤 추경"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윤석열 50조 손실보상금 카드 정부 난색…연내 실현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앞다퉈 민생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이은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50조원 투입'카드에 모두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돈 나올 구멍'을 찾느라 여념이 없다. 여야 모두 후보들이 당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공약을 먼저 치고 나가고 당이 부랴부랴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가운데, 상대측의 공약을 비토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총성 없는 예산 전쟁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여당은 올해는 현실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가급적 빨리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취지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경기 활성화 등에 따라 세수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하면 그때 추가 세수를 봐서 그 재원을 중심으로 추경을 하자고 할 수 있다"며 그 시기에 대해 "1분기, 빠르면 2월에라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것 말고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발행"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금'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공약한 50조원 패키지 재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공약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한다. 내년 6월이 시한이 되는 셈인데, 이달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집권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 그동안 불요불급한 데다 마구 쏟아 부어서 엉뚱한 데다 예산을 낭비(했다)"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함께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50조원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공약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은 아닌 것은 맞다"라면서도 "후보가 된 다음에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곳간 지기'인 재정당국은 두 후보의 주장에 제동걸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올해 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연말 종부세 폭탄·요소수 대란·코로나 확산 이낙연, 광주 찾아 여권 대선 악재 거론

민주 일부 정권재창출 위해 "호남 결집 나서야" 목소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광주를 찾아 경선 과정에서 고생을 했던 지역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 위로하는 자리에서 차기 대선까지 민주당이 서너차례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우선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과세에 따른 민심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등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과세 통지서를 받아 든 민심이 요동치면서 대선과 맞물린 대형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수 진영이 '세금 폭탄'으로 부풀려 정치 공세에 나설 경우,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 속에서 '물류대란' 가능성과 함께 석유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에너지 대란 조짐도 보인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실제로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이 전 대표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방역의 고삐를 다시 당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또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 민심이 만족하기 보다는 금액과 대상 등을 놓고 오히려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에서 아깝게 2위에 그친 홍준표 의원과의 만남 및 통화 내용을 익살스럽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9일에도 전남을 찾아 경선 캠프 활동가들과 만나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호남 민심 결집을 위해서는 이 전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남 민심 일각에 남아있는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호남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이 불게하기 위해서는 이 전 대표가 정권재창출의 당위성을 헌신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김부겸 국무총리(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슬로건이 적힌 스카프를 참석자들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안철수,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만남

전국여성대회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9일 여성 행사에서 조우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비롯한 범야권의 연대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어서 이날 만남은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전국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후보는 안 후보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애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로 입원하면서 불참했다.

윤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도 행사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윤 후보는 행사 뒤 취재진에게 "오랜만에 심상정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님을 만나 봬서 아주 반갑고 기뻤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불참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글쎄 좀 아쉽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언급했다.

이날 후보들은 앞다퉈 여성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행복하다"며 "노동시장 전반에 남녀 차별을 해소하고 특히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권 연장이 되든, 정권교체가 되든, '성추행 교대'가 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여성들이 슈퍼우먼이 돼서 알아서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라는 이런 나라에서 과연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나"라며 "이번 대선을 통해 일과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본회의서 곽상도 사퇴안 처리

여야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만 25세 이상→만 18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입법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 당장 이번주에 열리는 11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퇴안 등이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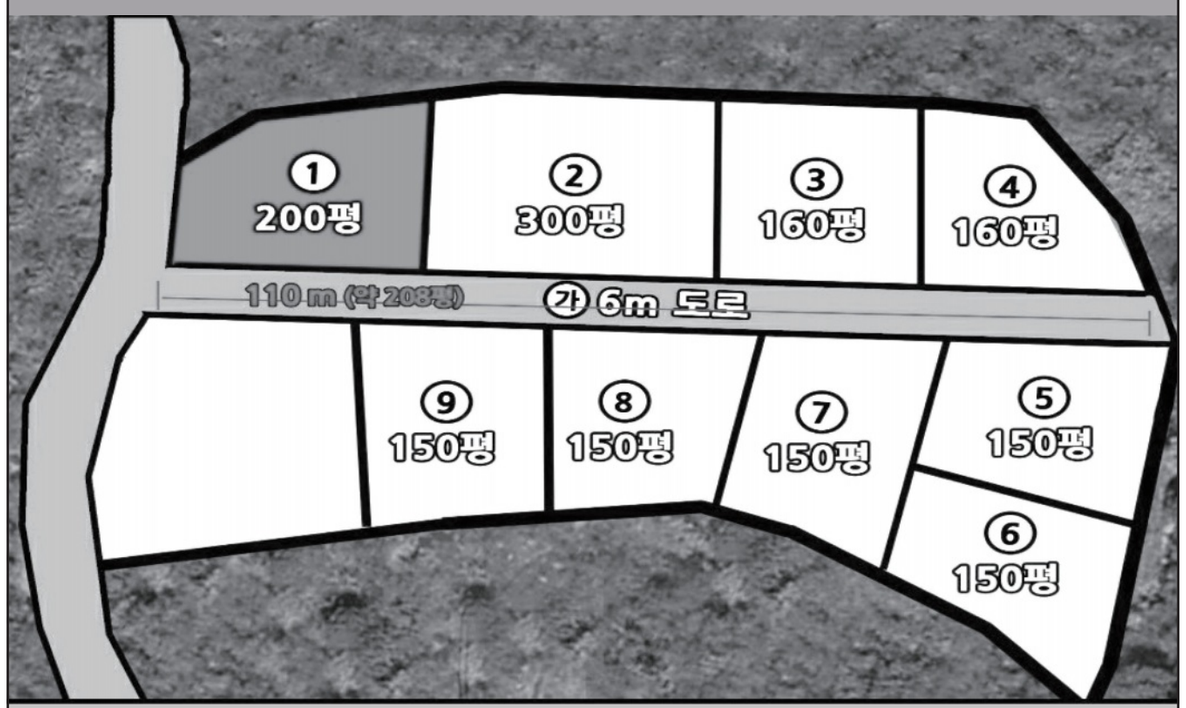
여야 법사위, 검찰 특활비·공수처 예산 공방

9일 국회 법사위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는 고발사주 의혹 등을 고리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에게 1억원을 주면 고발사주에 썼는지, 기자들에게 술을 사줬는지, 국민의힘에 줬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걸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수사정보정책관 언급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당시 대검의 해당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특활비를 국민의힘에 줬다느니 하는 비유는 극단적이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이 다시 "여기는 국회다. 밖에서 술 먹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국회에서 기관장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예산심사를 하자는 것이냐, 파투를 내자는 것이냐"고 받아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8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6십5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진도군 공고 제2021-818호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나. 사 업 범 위 :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인근 해상
다. 사 업 규 모 : 발전용량(400MW), 해상 및 육상 송전선로(154kV) 등
라. 사업시행자 : ㈜한화건설
마. 승 인 기 관 : 산업통상자원부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11월 10일 ~ 12월 20일
나. 공람장소 : 진도군청 그린에너지사업단 (철마도서관 3층)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 분	장 소	주민설명회 일시
진도군	진도군 진도읍 청용마을회관	2021.11.18.(목) / 15:00

※ 참석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27일(화)까지(공람기간 후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진도군청 그린에너지사업단)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라. 제출의견 :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보전방안, 공청회 개최 요구 등

5.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그린에너지사업단(061-540-33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